

순수 국내기술로

엠비엔테크 디지털 방송을 선도한다

아카이브 archive. 라틴어 archivum에서 유래 되었다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데이터의 보관, 보존이다. 아카이브가 유비쿼터스의 시대에 디지털을 입었다.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등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디지털로 보관·관리·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방송 솔루션 및 멀티미디어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엠비엔테크(www.mbnt.co.kr). 끊임없는 R&D를 통한 원천기술을 자랑하는 엠비엔테크의 다부진 프리젠테이션이 시작된다.

기술에 대한 자부심과 내실있는 운영을 자랑하는 엠비엔테크 김병욱 대표. 엠비엔테크를 설립하기 전 그는 유명IT벤처에서 디지털 방송 관련기술에 비전을 갖고 개발에 매진했었다. 그러나 노력 끝에 개발된 아카이브 시스템은 시장에서 별반 반응을 끌어내지 못했고 설상 가상 회사에서는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아카이브 관련 사업을 구조 조정하고 만다. “그래도 그만둘 수가 없었다”는 김 대표는 2004년 이전 회사동료들과 그야말로 맨손 창업을 한다.

“남의 사무실에서 더부살이 하는 어려움보다 기술에 대한 믿음이 더 컸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집스럽게 매달려 온 기술은 효과적인 디지털 아카이브, 즉 다양한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보존, 활용케 하는 것이다. “VHS 비디오테이프 같은 아날로그 데이터에서는 내가 원하는 장면을 보기 위해 앞뒤로 돌려가며 계속 찾아야 합니다. 디지털



엠비엔테크(주)

www.mbnt.co.kr

설립일_ 2004년 6월 29일

사업개요_ 디지털방송 아카이브시스템 및 멀티미디어 자산관리 솔루션 제공

자본금_ 4억

직원수_ 20명

아카이브는 이를 디지털 영상 표준으로 인코딩하고 데이터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메타데이터를 입력해 대용량 데이터 중에서 원하는 장면은 물론 관련된 정보까지 접근 가능케 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은 주로 방송사 및 자료를 손실 없이 보관해야 하는 관공서, 연구기관 등에 구축된다. 엠비엔테크의 첫 번째 실적도 바로 KBS 생활정보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이었다. 구축 이후에도 엠비엔테크의 진가가 과소평가되기도 했었다. “불과 몇 년 전 까지도 국산 기술에 대한 신뢰가 낮았던 터라, 고객들이 외산기술을 고집했었습니다. 하지만 외산기술은 소스를 오픈하지 않아 세부적인 커스터마이징 및 유지보수가 힘들었고, 엠비엔테크를 사용하면서 점차 기술의 우수성과 유지보수 지원이 원활하다는 것을 고객이 스스로 느끼면서 서서히 신뢰관계가 쌓여갔습니다.”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고 발 없는 말처럼 천리를 갔다. ETRI와 공동 연구 및 기술 교류를 이어왔으며 TBI 등 정부사업을 수행하며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 고객이 스스로 엠비엔테크를



찾아오게 만들었다. 그 결과 창립부터 현재까지 만 3년 남짓한 기간 동안 청와대, 국회, KBS, 한국영상자료원 등 수많은 고객사에 엠비엔테크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김대표의 직원에 대한 애정도 높다. 주 5일제 및 사우회 운영은 기본이고 매달 1회씩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 영화 관람 등 다양한 문화 체험을 공유한다. 직원 가족까지 참여하여 여름에는 야유회를 연말에는 호텔에서 행사를 실시하며 함께 한 해를 마무리 한다. 작은 벤처로는 드물게 사원 스스로가 목적을 갖고 구체적인 경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MBO를 운영 중이다. 벤처의 고질적 문제인 인력수급은 적극적인 산학협력을 통해 해결했다. 실제 적지 않은 숫자가 산학 협력을 통해 엠비엔테크에서 근무 중이다.

“이제야 시작선에 선 기분”이라며 올해는 엠비엔테크를 알리는 데 주력하고 싶다는 김 대표. 올 매출은 멀티미디어 자산관리 시스템 분야의 성장으로 작년 25억 매출의 두 배 가량인 40~50억을 예상하고 있다. “스스로 만족하고, 내 주변이 만족해야 비로소 밖으로 내 보일 수 있다”며 보다 완벽한 기술을 추구하는 김병욱 대표. 앞으로 더욱 발전된 디지털 방송 솔루션으로 거침없이 뻗어나갈 그와 엠비엔테크의 모습을 그려본다.

제품소개

디지털 방송 솔루션 : M-Archive System

- 순수 국내 기술로 자체 개발된 자산관리 솔루션 M-Archive System은 M-Ingest, M-Catalog, M-Browser, M-Precut, M-CMS, M-Search 로 구성
- 멀티미디어 자료를 보관 재활용 하기 위해 동영상 콘텐츠를 원하는 구간 프레임부터 검색 및 플레이(Catalog) 가능
- 업계표준인 MPEG-2 또는 DVCPRO 포맷 지원
- 고화질 동영상 콘텐츠를 전체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검색 및 플레이 위한 저화질의 데이터로 변환하여(Real Time Trans Code) 사용 가능
- 유연한 아키텍처를 지원
- 모든 과정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관리, 모니터링(Content Management System) 가능
- 생성된 콘텐츠를 활용목적에 따라 스트리밍 서비스 가능

차세대 멀티미디어 자산관리 솔루션 : AVICOM

- Audio, Video, Image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생성, 저장, 관리 및 서비스를 한 대의 시스템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All in One 방식의 솔루션.
- 디지털 방송 분야 및 멀티미디어자료관리, UCC, 인터넷방송 분야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

주요 레퍼런스

연합뉴스, KBS, 청와대, 국회, 해양경찰청, 해군본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다수.